

# '3퇴'와 평안

제 323기 2018년 6월 29일

2018년 6월 24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793만 명

## 미국 국회의원이 '3퇴' 열풍을 성원하는 결의안 발기

[명혜망] '퇴당'은 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총칭하며 '3퇴'라고도 한다. 2018년 6월 8일, 미국 연방하원 다나 로라바커는 중국 민중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성원하고, 파룬궁 박해 즉각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제932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이미 미국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중공이 중국에서 적어도 8천만 명의 비정상적인 사망을 초래했고, 평화적 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을 지속했으며, 파룬궁에 대해서도 장장 19년 동안 이어온 박해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공에게 파룬궁 수련생 장기강제적 출의 책임이 있으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2017년에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의 중국 관련 장을 통해 "(중공) 정부가 수많은 종교의 자유 주창자, 인권인사, 종교 신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 등을 계속해서 구류, 감금, 학대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약칭 추사국제, WOIPFG)'의 조사를 근거로 강제 생체 장기적출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것은 중공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집단학살 범죄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또 중국 인민의 자유와 중국 공산당 및 부속 조직 탈퇴를 지지하며, 중공과 부속 조직을 탈퇴한 민중이 2018년에 약 3억 명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932호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성원하고, 파룬궁 박해의 즉각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며, 중국의 퇴당 열풍을 성원한다고 밝혔다.

### '3퇴'는 세계에 중국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2004년 11월 19일, <따지웬시보>가 발표한 시리즈 사설 <9평 공산당>은 공산당의 하늘, 땅, 사람을 거역하는 사교 본질을 폭로해 중국 민중의 중공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촉발했다.

중국의 탈당 조류는 미국 하원의 중견 의



다나 로라바커

원 다나 로라바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라바커는 '퇴당'이 사람들에게 사악한 공산 체제를 벗어날 기회를 주었고, 세계로 하여금 공산 체제 내부에 있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되도록 함을 알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퇴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악한 공산 체제 내부의 사람들에게 벗어날 기회를 주었고, 더 이상 자신의 동포를 탄압하는데 가담하지 않게 했고, 더 이상 중공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지 않게 했습니다."

## [‘3퇴’하여 복을 받다]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던 질녀가 목숨을 구하다

[명혜망]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이야기는 대륙에 널리 퍼져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던 질녀가 목숨을 구했다

나는 올해 79세다. 남편의 질녀가 2015년 말에 병원에서 난소암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암세포지수가 6백을 넘도록 확산돼 수술을 할 수가 없었고, 의사는 6개월 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카사위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속절없이 눈물만 흘렸다. 2016년, 질녀가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에 입원해 복수를 뺏는데, 우리는 병문안을 가서 파룬궁(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알려주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쪐싼린 하오(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우라고 알려주었다. 질녀가 조카사위와 함께 퇴원한 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데 동의했다. 질녀는 또 파룬궁 수련에 동의했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전법륜 등등의 자료를 주었다.

질녀가 화학치료를 할 때는 암세포가 3천을 넘었는데, 정상 지수는 30이다. 그녀는 화학치료를 네 차례 받았고, 화학치료를 받는

동안에 파룬궁 수련의 길로 들어섰다. 나중에 그녀의 암 지수는 정상치인 30이 됐다.

그때부터 질녀는 늘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겪은 일과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 '3퇴' 후에 아내가 좋아지다

[대륙 투고] 하루는 내가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린 후에 차를 타려고 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한 남자였는데, 나에게 물었다. "차를 탈거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작년에 길에서 저를 '3퇴'시켜주셨죠? 당시 저는 훨체어에 앉아 있었죠." 내가 말했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내가 물었다.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 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가 말했다. "있어요. 좋아진 게 정말 많아요. 당신이 저를 탈퇴시켜 준 후에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이 중공이 너무나 사악해서 당신 말에 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집안이 화목해졌어요. 제가 나중에 얻은 아내는 저한테 돈만 요구하고 늘 다쳤는데, 그때 ('3퇴') 이후로 저한테 돈

이야기를 안했어요. 성격도 좋아져서 저하고 다투지도 않고, 생활도 잘 풀렸어요. 이 (파룬)공을 어떻게 수련하는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Usb 메모리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이 속에 봉쇄 돌파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파해서 보면 인터넷에 명혜망이 있어서 뭐든지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태워 드릴까요?" 나는 그의 호의에 고마움을 표하고 그의 차는 타지 않았다.

### '3퇴' 하면 왜 복을 받는가?

왜 '3퇴'를 하고 "파룬따파 하오, 쪐싼린 하오"만 외우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파룬궁이 불법(佛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사람이 생각 하나를 하면 온 천지가 안다"고 말하는데, 파룬궁(파룬따파)이 모함과 박해를 받을 때 당신이 그때도 시비를 가릴 수 있고, 선을 지지한다면 이는 곧 가장 진귀한 일념이므로 하늘의 보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는 "파룬따파 하오"를 믿어 복을 받고 재난을 비켜 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 사복경찰이 진상을 듣고 시원하게 ‘3퇴’에 동의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시 공회 부장, “나는 당비를 내지 않고 탈당하겠다!”**

[대륙 투고] 최근 나는 위엄이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두 손을 뒷짐 진 후 발걸음을 멈추어 나를 바라본 다음 고개를 두 번 끄덕이고 말했다. “장쩌민은 좋은 일이라곤 조금도 안 했어요!” 내가 말했다. “장쩌민은 공산당을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고 ‘진(眞), 선(善), 인(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파룬궁 수련생)을 수없이 박해해 살해했어요.”

그가 크게 공감하면서 말했다. “내가 넉 달 동안 당비를 안 내니까 위에서 1,700위안을 내라고 했는데, 나는 안 낸다고 했어요. 그들이 당비를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당비를 못 내니까 탈당하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나를 탈당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당비 내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부문에 계셨나요?” 그가 말했다. “나는 시 공회에서 부장을 지냈는데, 올해 71세예요.” 내가 말했다.

## 중공을 탈퇴해야만 희망이 있다

**[명혜망]** 중국 5천년 전통문화는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반신문화로, 인류 문화의 귀중한 보물이며, 신불을 믿고 선악유보를 믿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이 근대 이전에 비교적 높은 도덕수준으로 출발 지켜온 것이다. 한편 중공은 자신의 독재 통치를 위해 반드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전통문화를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인성을 당성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당문화를 만들어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을 기초로 신불의 존재를 부정하고, 선악보응을 봉건미신으로 여기며 현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위해서라면 나쁜 짓을 서슴지 않게 했다.

세계 어느 당파의 내부투쟁도 중공처럼 복잡하고, 빈번하고, 처참하지 않다. 세계 어느 국가의 당 우두머리도 낮기죽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추악한 일이 드러나고도 여전히 버티며 서 있지 않다.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도 중국인처럼 집권당이 싫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도 중국인처럼 하루 종일 놀라고 무서워 움츠러들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타격받아 나쁘게 변하고,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것이 곧 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다.

세계에서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가입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두 번째 당이 없다. 공산당의 시조 마르크스는 애초에 <공산당 선언> 앞머리에서 조금도 거리낌없이 밝혔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빙동거리고 있다.” 공산당은 스스로 유령(마귀)임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공산당에게 충성, 헌신, 희생을 맹세하는 것은 곧 유령(마귀)을 향해 충성, 헌신, 희생을 맹세하는 것이다. 생명을 공산당에 바치는 것은 곧 생명을 유령(마귀)에게 바치는 과정이며, 한 사람이 인성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과정이며, 이 생명은 곧 이로부터 공산당(마귀)의 노예와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당을) 탈퇴하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말했다. “탈퇴가 안돼요. 그들은 탈퇴를 안 시켜요.” 내가 말했다. “이 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여서 들어가는 건 돼도 나가는 건 못하게 해요. 해외 대기원 사이트에 탈당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벌써 중국인 3억 여 명이 거기에서 당, 단, 대 탈퇴 성명을 했어요.” 노인은 ‘3퇴’ 성명을 한다는 말에 유쾌하게 “좋아요!”라고 말했다.

## 사복경찰이 진상을 듣고 시원하게 ‘3퇴’에 동의하다

[대륙 투고] 우리 시의 큰 슈퍼마켓 앞 길에서 나는 한 남자가 손에 휴대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서 물었다. “동생, 동생은 파출소 사람인가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절대 파룬궁을 박해하지마세요. 공산당은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인가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나는 파룬궁을 20년 배웠는데, 병이 없는데다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조금도 안 다쳤어요. (파룬궁은) 정말 불법(佛法)이잖아요. 현재 천재인화가 날마다 많아지는데, 나는 당신이잖아요!”

도 나처럼 평안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사복경찰은 쓴웃음을 짓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방법이 없어요. 공산당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어요.” 그는 곧바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밥도 먹어야 하지만, 목숨부터 지켜야죠.” 그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외국 여행을 한 사람은 알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전 세계가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게 해요. 중공만 탄압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박해해 살해하고, 산 채로 적출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 를 고가에 팔아요. 기회가 되면 당신은 구이저우에 가서 장자석을 보세요. 위에 있는 중국공산당 망(亡)이라는 여섯 글자를 과학자들이 검사하고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늘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당원인가요?” 그가 말했다. “예.” 내가 말했다. “XX라는 가명으로 당, 단, 대에서 탈퇴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파룬따파 하오, 찐싼련 하오를 기억해야 해요.” 그는 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좋아요!”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맹세 내용은 하나의 몸을 파는 계약이며, 하나의 독한 맹세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이 독한 맹세를 없애지 않은 사람은 곧 하늘에게 중공의 한 분자로 보일 것이며, 그래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각종 겁난 속에서 중공을 따라 함께 도태될 것이다.

‘3퇴’ 성명을 하는 목적은 바로 애초에 공산당을 향해 했던 독한 맹세를 취소하고 중공과 선을 그어 장래에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각종 겁난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평안을 지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탈당했으니 성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수년 간 당비를 내지 않아 자동 탈퇴됐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 이미 자동으로 퇴단, 퇴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공의 당, 단, 대 가입 당시에 오른 주먹을 들고 했던 독한 맹세를 지우지 못했다. 오직 공개적인 방식으로 탈퇴하고, 행위로 표시해야만 이 “독한 맹세”를 지울 수 있고,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겁난 속에서 목숨을 지키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진심으로 ‘3퇴’ 성명을 해야만 하며, 실명, 필명, 아명, 가명을 써도 같은 효과가 있다.